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육복연/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어린 나이에 여자 친구를 만나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만 돌이킬 수 없기에 나오는 건 눈물뿐입니다.

3월달 쯤에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수술을 하기는 싫은데, 꼭 살인을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여자 친구는 고국 밖에 안됐어요. 여자 친구가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애를 낳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 건 눈물뿐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질 않아요. 여자 친구를 위해서라도 빨리 말해야 되는데, 난 그냥 지금 힘든데, 여자 친구는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하면 정말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게 용기를 주세요.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행동에 한없이 후회하고 있는 남학생이군요. 하지만 여자 친구의 어려움을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는 OO님은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원치않는 임신이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새생명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인데, 왜 이제서야 상담실을 찾았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3월경에 임신이 되었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군요.

태아가 임신 5개월이 지나면 거의 성장을 다했으며, 임신 7개월이면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지 않

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민약 지금 낙태 수술을 한다면 여자 친구의 몸에도 커다란 무리가 따르며, 거의 완성된 생명체에 대한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리를 해서 낙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낳아서 입양을 시킬 수도 있는데, 아기를 낳고 입양을 주선하는 '애란원'이란 곳도 있는데, 낳아서 입양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 해주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부모님은 OO님이 어려울 때 OO님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자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OO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분이니 하루빨리 부모님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성충동이 얼마나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서로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크지 않도록 좋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두우면 어둠을 핑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고 가야 합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등불이 없어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지요.

지금의 눈물이 앞으로 자신의 성숙에 밑거름이 되고, 한 포기의 풀이 지닌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